

고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20억원' 달성

민선 8기 공약사항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표액 조기 달성

다양한 이벤트·답례품·현장 홍보 등 기부 참여 역할 톡톡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추진해 온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지난 12월 10일 기준 누적 2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목표액 이행이 가시화된 성과다.

군은 '고향사랑e음'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부 편의를 강화하고 전국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 접근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브·웰로 등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해 다양한 기부 참여 경로를 제공했다. 이러한 다채널 기부 체계는 신규 기부자 유입과 재기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담·접수·확인·답례를 통합한 원스톱 상담체계를 운영해 기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부자 안내·답례품 홍보·현장 중심 홍보와 함께 12월에는 연말 정산 안내를 강화하는 등 참여 프로그램·이벤트를 병행해 기부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청정 고흥의 우수 답례품은 기부자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고흥 특산물인 유자, 수호전사 햄살, 한우, 김, 미역, 수산물 등은 전국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고흥물임점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청정 고흥'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흥'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답례품 경쟁력은 기부를 고려하는 방문객들에게 직관적인 매력 요소로 작용해 모금 확산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우수 답례품 전시, 향우 네트워크 연계 홍보, 군민 대상 안내 활동 등이 더해지면서 기부 참여 확산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으며, 향우와 군민은 물론 고흥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기부층의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성과 뚜렷

농기계임대사업소 통해 5,930대 임대-콩정선 3,812포 처리

전남 함평군이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12월 "2025년 한 해 동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5,930대를 임대하고, 3,812포의 콩 정선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서부점·동부점 3개소를 운영하며, 단기 임대와 장기(주산지) 임대를 통해 다양한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해 고령농·영세농의 노동 부담을 크게 덜었다.

특히 농번기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병행해 임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농기계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와 함께 세척시설을 확충해 사용 후 세척 부담을 줄이는 등 농민 편의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아울러 임대사업소에서는 콩 수확

기에 콩 정선 작업도 지원해 소규모 확대와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상품성 향상과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콩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촌 인력 감소와 농기계 구매 부담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농기계 임대 서비스와 콩 정선 작업 지원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임대 농기계의 정기 점검·세척·정비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 안전교육 확대, 자율 세척시설 운영 등 현장 중심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단순한 장비 대여를 넘어 농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장비 보강과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환 기자

순천시,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 도움 기대

1만 5,34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 지급

순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 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간불리직불사업 등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5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

수했으며, 6~11월 동안 이행점검 및 대량 검증 등 실시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무교육'을 운영한 결과, 교육 이수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향상되며 농업인의 이행 부담을 크게 완화

했다. 이번 지급된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소득·거주조건 등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동결됐던 단가가 평균 5% 이상돼 농

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 경영비 상승, 깨서무늬병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았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나주시, '전국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3년 연속 '대상' 수상

독보적인 성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먹거리 정책 경쟁력 입증

나주시는 2023년 첫 대상 수상 이후 3년 연속 대상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는 전국 지자체별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지역 먹거리 지수로 계량 평가해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안전하고 환경적인 지역 먹거리 생산, 지역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소비, 지역농산물 가치 확산, 먹거리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개 평가 과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나주시는 5개 평가 과제, 14개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농가 조직화 교육, 민간 영역 로컬푸드 공급, 지역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동, 직거래 장터 운영, 먹거리 유통과정 전반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기술 이전(베로만주), 소규모 학교급식 및 공공 급식 공급 확대 등도 우수 정책사례로 꼽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화순군, 구북구(군수 구복규)은 지난 11일 화순축협(조합장 정삼차)과 곡성축협(조합장 김형조)이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을 열고, 서로의 지역에 각각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호기탁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최우영 화순군지부장, 방현용 곡성군지부장,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 김형조 곡성축협 조합장, 박종균 화순축협 상임이사, 신일수 곡성축협 전무, 한동훈 곡성축협 상무, 신정화 곡성군청 행정

화순축협-곡성축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식 개최

"상호기부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맞손"

과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특히 화순축협은 상반기 제주위미농협과의 상호기부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상호기부에 참여하며, 화순군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은 "2023년에

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이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호기부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상호기부에 앞장서 주신 화순축협과 곡성축협 인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양시,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교육' 실시

주요 수법 안내와 실제 피해사례 영상 시청 등 사례 중심 교육 운영

광양시는 최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등 시민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신중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홍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탐지력 테스트, 유형별 수법 소개, 피해사례 영상 시청, 대응 요령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특히 실제 피해 영상을 기반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를 마련해, 다양화·고도화되는 피싱 수법을 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중마권과 광양읍 권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중마동 권역 교육은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2차 광양읍 권역 교육은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 광양읍사무소 대회의

실에서 각각 열리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과 대응 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금전을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시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반드시 공식 대표전화 또는 해당 부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심스러운 명함이나 공문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청에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있는 건데 말이다.
우어도 보는 것.
만드는 거야 할 것.
잠시
평범한 것은
극한 사람,
이들
가려지고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